

##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이 내담아동과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이 소 연<sup>†</sup>                      김 광 용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의 부모와의 아동기 경험이 내담아동과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아동상담소, 소아정신과, 복지관 내 상담소, 연구소, 대학부설 상담소 등 81개 기관에서 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놀이치료자 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Epstein(1983)이 개발한 '부모-포레 척도(MFPS)'를 전현진(1996)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역전이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선 본 연구자가 번안, 보완한 척도인 Holmqvist(2001)의 감정 체크리스트(FC)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담아동에 대한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은 첫째,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모(母)로부터 과보호되었을수록 내담아동에게 '동정적' 역전이 감정을, 거부되었을수록 '냉담한'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둘째,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부(父)로부터 거부되었을수록 내담아동에 대해 '자책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은 첫째,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모(母)에게 수용받고 부(父)로부터 독립성을 격려받은 긍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놀이치료자의 부모에게 '긍정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고, 모(母)에게 과보호되고 부(父)에게 수용 받았을수록, '중립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둘째,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모(母)에게 과보호 받았을수록, 내담아동의 부모에게 '동정적' '부정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게 된다. 셋째,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모(母)에게 거부된 경험이 많을수록, 내담아동의 부모에게 '냉담한', '자책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놀이치료자의 내담아동에 대한 역전이 감정과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8개 하부요인 모두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주요어 : 놀이치료자, 역전이 감정, 아동기 경험

이소연은 유린원광종합복지관에서, 김광용은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 소 연, (121-21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6-8 A동 402호,  
전화 : 011-609-5785 E-Mail : anndy@hanmail.net

놀이치료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대인관계, 즉 치료적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특별한 과정이다. 치료적 관계에서 내담아동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좌절, 긴장, 불안, 공격, 두려움, 혼란 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러한 감정과 직면하게 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Axline, 1947). 치료적 관계에서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치료자에 의해 보호되고 가치-중립적인 안전한 공간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료자의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반응은 아동으로 하여금 치료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한다. 이처럼, 치료적 관계에서 치료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Moustakas, 1955; Landreth, 1991)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Loewald(1986)가 치료자에게 필요한 중립성이란 것이 아무 감정도 없는 백지 상태나 텅 빈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치료자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내담자의 강렬한 감정에 대해 자신의 관점이나 경험을 통해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자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일반적으로 역전이라 한다.

Freud(1910, 1959)를 비롯한 여러 고전적 연구자(Fliess, 1953, Glover, 1955; Reich, 1951)들은 역전이 반응이 치료자의 무의식적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치료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역전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성격적 결함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역전이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점차 수정되어, 치료적 상황에서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전체적인 감정 반응으로 보는 총체적인 관점이 등장하였다. 이 관점에서는 역전이가 내담자에 대한 치료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Fromm-Reichmann, 1948; Heimann, 1950; Winnicott, 1949).

최근에는, 역전이를 치료자의 갈등과 욕구에 의해 나오는 불가피한 반응이라고 정의하는 세 번째 관점이 나타났다(Gelso & Carter, 1985). 이 관점에서의 역전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내담자의 역동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치료를 증진시키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려면 필수적으로 상담자가 역전이 감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치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역전이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Friedman & Gelso, 2000). 즉, 치료자가 역전이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역전이 감정을 조절하고, 역전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치료적인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전이의 근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해 왔다. 처음 Freud(1910)가 역전이의 유발 요인을 치료자의 신경증적 갈등이라고 언급한 이후, 역전이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에 상관없이 대부분 치료자 변인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역전이를 유발하는 치료자 요인은, 치료자 성격의 해결되지 않은 영역(Watkins, 1985), 내담자 성격에 대한 치료자의 선호와 태도(McClure & Hodge, 1987), 치료자의 치료경험수준(Brody & Farber, 1996), 초기 아동기 감정 양식(Saul, 1972), 치료자의 무의식적인 유아적 욕구(Blanck & Blanck, 1979), 자아도취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경우(Miller, 1981), 어린 시절 치료자가 어머니로부터 수용된 경험(Hayes, McCracken, McClanahan & Hill, 1998), 부모상(image)과 내사(introjection)에 의해 형성된 자기상(Holmqvist & Armelius, 2000)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놀이치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동기와 관련된 어떤 특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역전이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한 연구(O'Connor, 1991; Poal & Weisz, 1989)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치료자의 현재 지각

이나 갈등에 역전이 유발 요인을 두기도 하지만, 아동기의 경험이 현재의 대인관계, 정서 그리고 행동방식을 결정짓는 원천적인 역할을 한다는 Belsky와 Vondra(1993)의 연구와 같이, 역전이를 유발하는 치료자 요인이 어린 시절,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된 경험들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이 해결되지 않고 인식되지 못할 경우, 치료자는 치료장면 속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해결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즉, 치료자가 아동기 경험에 미해결된 문제가 있는 경우 역전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역전이의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기 경험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에는 아동기의 경험과 부모의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Belsky, 1984, Crowell & Feldman, 1988)와 아동기 경험과 인성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가 있다. 그리고, Epstein(1983)이 아동기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이후, 연구자들은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와의 애착관계(Rick, 1985),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양육행동(Cronkenberg, 1987)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왔고, 국내에서는 전현진(1997)이 아동기 경험이 인성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아동기 경험이 부모의 인성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치료자의 행동과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특히 역전이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치료분야의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료자의 역전이에 미치는 아동기 경험의 영향에 대해 질적인 연구만 일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속 관심이 되어왔던 역전이와 아동기 경험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탐

색하고자 하였다. 단, 본 연구의 관심은 내담아동을 치료하는 놀이치료자이기 때문에,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과 역전이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았다.

놀이치료와 같이 아동을 치료할 경우, 성인보다는 아동이 치료자에 의해 나타난 감정적인 반응을 양적, 질적으로 더 강하고 분열적인 것으로 생각한다(Sachner & Farber, 1997). 그리고, 치료자가 당황, 분노,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내적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아동을 치료하는 경우 감정의 정도가 더 강하고 경험하는 빈도도 잦다(Chethik, 1989).

그리고, 놀이치료에서는 치료자와 내담아동의 관계뿐 아니라 상담조력자인 부모와의 치료적 동맹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Axline, 1947).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아동에 대한 치료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자가 부모에게 느끼는 아동의 왜곡된 지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 상황에 대한 탐색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동과의 치료뿐 아니라 부모와 동맹관계를 맺고 생태학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O'Connor, 1991). 이것은 부모에게도 놀이치료자의 역전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Bernstein, & Glenn, 1988; Brandell, 1992). 아동상담에서 부모에 대한 역전이는 성인치료와 아동치료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놀이치료에서는 아동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치료자의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이 치료관계를 맺는 것과 치료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뿐 아니라, 내담아동을 대상으로 한 역전이 연구가 부족하다. 이처럼, 아동치료자에 대한 역전이 연구의 부족에 대해 여러 학자들

(Michelle, 1997; Meschiany, 1994; Brandell, 1992; Garbel & Bemporad, 1994)은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아동치료를 대상으로 한 역전이 연구(Michelle, 1997; Scachner & Farber, 1997)가 조금씩 수행되어져 오고 있지만,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역전이에 대한 양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복잡한 역전이 구조의 작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정의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전이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수행되고 발전되고 있다. Q 분류 기법을 이용해 치료자의 왜곡된 지각을 수량화하는 연구(Fiedler, 1951), 치료자가 지각한 내담자의 성격과 내담자 자신이 보고한 성격을 비교해 치료자의 지각적인 왜곡을 측정하는 연구(McClure & Hodge, 1987), 역전이를 목록화하는 방법으로 치료자의 지각적인 왜곡을 측정하는 연구(Synder & Synder, 1961), 상태불안과 역전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Robbins & Jolkovski, 1987), 역전이의 원인, 동기, 영향을 측정하는 질적인 이론들로 역전이를 측정하는 연구(Hayes et al., 1998)들이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표준화된 역전이 측정 도구들이 고안되면서 객관적으로 역전이를 측정하고 있다. 역전이 관리능력 질문지를 통해 치료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을 측정하는 연구(Van Wagoner, Gelso, Hayes & Diemer, 1991),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역전이 행동목록(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과 한 문항으로 구성된 역전이 목록(Countertransference Index)을 통해 역전이를 행동을 측정하는 연구(Friedman & Gelso, 2000),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역전이와 관련된 행동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아동에 대한 역전이 척도(Countertransference to Children Scale)로 역전이를 측정하는 연구(Scachner & Farber, 1997), 긍정적, 부정적, 따뜻한, 냉담한, 차분한, 자책적, 동정적,

중립적 역전이 감정의 8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감정 체크리스트를 통해 역전이 감정을 측정하는 연구(Holmqvist, 2001)가 있다.

국내의 역전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개념조차 모호하다가, 최근 문헌고찰(도상금, 1994; 이재광, 기백석, 박두병, 이길홍, 이재우, 1989)이나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한 연구들(신교숙, 2001; 장세미, 1999)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전이 자체를 측정하는 연구나 역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놀이치료 상황에서의 역전이 감정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놀이치료관련 연구에서도 역전이 뿐만 아니라, 치료자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윤경, 2001).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역전이 감정에 주요 초점을 두고 Holmqvist(2001)의 감정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역전이 감정에 주목한 것은 역전이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이 역전이의 유용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놀이치료 상황에서의 역전이 감정은 내담아동과 부모의 역전이가 감정을 같이 다루어야 하므로, 감정 체크리스트를 내담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실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이 내담아동과 부모에 대한 역전이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역전이를 유발할 수 있는 놀이치료자의 부모와의 아동기 경험을 밝히고, 상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전이가 감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은 놀이치료자의 역전이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놀이치료자의 내담아동에 대한

역전이 감정과 내담아동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측정도구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 측정도구**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측정은 Epstein(1983)의 ‘부모-또래 척도(MFPS)’를 전현진 (1996)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부모-또래 척도(MFPS)는 총 70문항으로 부모 각각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 수용 대 거부 차원, 부모이상화 차원과 또래 상호작용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의 부모와의 아동기 경험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부모 각각 12문항)과 수용 대 거부 차원(부모 각각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5점으로 된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기 경험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부모에 의해 과보호되지 않고 독립성이 더 많이 격려되었으며, 부모로부터 거부되지 않고 더 많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놀이치료 내담아동이 5사례 이상인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5사례 이상의 내담아동을 치료하고 있는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놀이치료자가 주로 나타내는 역전이 감정을 내담아동과 부모 각각에 대해 측정하고, 그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아동상담소, 소아정신과, 복지관 내 상담소, 연구소, 대학부설 상담소 등 81개 기관에서 85명을 표집하여, 85부를 배포하였다. 이들 중 놀이치료 내담아동과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 질문지 모두에 응답한 76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모두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제 분석에서 사용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76명 중 여자가 100%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25-29세가 52.6%, 30-35세가 30.3%, 36-40세가 7.9%, 41-45세가 3.9%, 46-50세가 5.3%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59.2%, 기혼이 40.8%로 나타났고, 놀이치료자의 학력은 대학졸업자인 경우 2.6%,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17.1%,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61.8%, 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18.3%이었다. 놀이치료자를 했던 사례수를 살펴보면, 8-10명이 14.5%, 11-40명이 43.4%, 41-100명이 19.7%, 101명 이상이 14.5%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가 부모가 아닌 놀이치료자이고 미혼인 비율도 59.2%여서,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한 최종적인 분석과정에서는 모의 수용 대 거부 차원(10문항)과 모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5문항), 부의 수용 대 거부 차원(12문항)과 부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4문항)으로 문항이 재구성되었다. 문항이 재구성된 것은 치료자들이 부모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에 속해 있던 문항을 ‘수용 대 거부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모와 관련된 아동기 경험 중 모의수용(거부)의 Cronbach's  $\alpha$ 는 .88, 모의 독립성 조장(과잉보호)는 .77이었고, 부와 관련된 아동기 경험 중 부의 수용(거부)의 Cronbach's  $\alpha$ 는 .85, 부의 독립성 조장(과잉보호)는 .69이었다.

###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감정 체크리스트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감정의 측정은 Holmqvist (2001)의 감정 체크리스트(The Feeling Checklist; FC)를 본 연구자가 번안, 수정·보안하여 사용하였다. 역전이 감정 체크리스트는 치료자의 내담자에 대한 감정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32개의 감정 단어들은 8개의 요인을 구성한다. 한 요인에는 4개의 감정 형용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긍정적’ 역전이 감정(감정단어: 만족스러운, 즐거운, 솔직한, 자유로운), ‘따뜻한’ 역전이 감정(감정단어: 열의있는, 따뜻한, 재미있는, 애정이 넘치는), ‘차분한’ 역전이 감정(감정단어: 차분한, 안정된, 지혜로운, 신뢰하는), ‘동정적’ 역전이 감정(감정단어: 압도되는, 연민이 드는, 감동한, 놀라운), ‘부정적’ 역전이 감정(감정단어: 슬픈, 긴장하는, 화난, 무서운), ‘냉담한’ 역전이 감정(감정단어: 무관심한, 정이 안 붙는, 지루한, 냉담한), ‘자책적’ 역전이 감정(감정단어: 후회하는, 죄책감이 드는, 절망적인, 썩이 나는), ‘중립적’ 역전이 감정(감정단어: 조용한, 감정을 절제하는, 자제하는, 중립적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자의 역전이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구성의 질문지를 내담아동과 부모 각각에 대해서 치료자가 반응케 하였다. 이 때 치료자가 주로 나타내는 역전이 반응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 치료자가 내담아동과 부모를 한 쌍으로 하여 5-10명 사례 각각에 대한 감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5사례 이상에 반응한 응답자의 결과만 분석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감정 체크리스트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각각 .85이며 내담아동에 대한 역전이 감정 체크리스트의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69부터 .92의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 체크리스트의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76부터 .93의 범위로 나타났다.

### 연구절차

본조사는 2001년 4월 11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27일 동안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놀이치료를 하고 있는 각 기관이나 놀이치료자의 자택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포하였고, 우편과 직접방문으로 회수하였다.

## 연구결과

###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이 내담아동과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이 내담아동에 대한 역전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에 따라 내담아동에 대한 역전이 감정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기 경험의 하위 요인인 모의 수용(거부), 모의 독립성 조장(과잉보호), 부의 수용(거부), 부의 독립성 조장(과잉보호)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역전이 감정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따뜻한’, ‘차분한’, ‘동정적’, ‘부정적’, ‘냉담한’, ‘자책적’, ‘중립적’ 역전이 감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의 각 하위요인이 역전이 감정의 각 하위요인을 예측하는 정도는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내담아동에 대한 놀이치료자의 ‘동정적’ 역전이 감정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표 1. 내담아동에 대한 역전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자의 아동기 경험 하위요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역전이 감정	예측 변인	$\beta$	모델 적합도	누적 $R^2$
동정적	모의 독립성 조장(과잉보호)	-.25*	$F=4.97^*$	.06
냉담한	모의 수용(거부)	-.36***	$F=11.01^{***}$	.13
자책적	부의 수용(거부)	-.26*	$F=5.51^*$	.07

주. \* $p<.05$  \*\* $p<.01$  \*\*\* $p<.001$

모의 독립성 조장( $\beta=-.25, p<.05$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6%이었다. 즉, 아동기에 놀이치료자가 모로부터 과보호되었을수록, 내담아동에 대해 ‘동정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담아동에 대한 ‘냉담한’ 역전이 감정에 있어서는 모의 수용( $\beta=-.36, p<.001$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3%이었다. 즉, 아동기에 놀이치료자가 모로부터 거부되었을수록, 내담아동에 대해 ‘냉담한’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책적’ 역전이 감정에 있어서는 부의 수용( $\beta=-.26, p<.05$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이었다. 즉, 아동기에 놀이치료자가 부에게 거부되었을수록 내담아동에 대해 ‘자책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이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에 따라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기 경험의 하위 요인인 모의 수용(거부), 모의 독립성 조장(과잉보호), 부의 수용(거부), 부의 독립성 조장(과잉보호)를 독립변인으로 두고, 역전이 감정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따뜻한’, ‘차분한’, ‘동정적’, ‘부정적’, ‘냉담한’, ‘자책적’, ‘중립적’ 역전이 감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기 경험의 각 하위요인이 역전이 감정의 각 하위요인을 예측하는 정도는 표 2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놀이치료자의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긍정적’ 역전이 감정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모에 의한 수용 경험( $\beta=.43, p<.001$ )과 부의 독립성 조장 경험( $\beta=.21,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모에게 수용받고 부로부터 독립성을 격려 받았을수록,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해 ‘긍정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역전이 감정을 예측해 주는 변인의 설명력은 21%이었다.

표 2.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자의 아동기 경험 하위요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역전이 감정	예측 변인	$\beta$	모델 적합도	누적 $R^2$
긍정적	모의 수용	.43***	$F=11.29^{***}$	.21
	부의 독립성 조장	.21***		
따뜻한	모의 수용	.37***	$F=12.01^{***}$	.14
동정적	모의 독립성 조장	-.29**	$F=7.08^{**}$	.09
부정적	모의 독립성 조장	-.24*	$F=4.89^*$	.06
냉담한	모의 수용	-.26*	$F=5.63^*$	.07
자책적	모의 수용	-.27*	$F=5.93^*$	.07
중립적	부의 수용	.26**	$F=5.21^{**}$	.12
	모의 독립성 조장	-.23**		

주. \* $p<.05$  \*\* $p<.01$  \*\*\* $p<.001$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따뜻한’ 역전이 감정은 모에 의한 수용경험( $\beta=.37, p<.001$ )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4%이었다. 이는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모에게 수용 받았을수록, 내담아동의 부모에게 ‘따뜻한’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정적’ 역전이 감정은 모에 의한 독립성 조장경험( $\beta=-.29, p<.01$ )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9%이었다. 이는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모에게 과보호되었을수록 내담아동의 부모에게 ‘동정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놀이치료자의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 역전이 감정은 모에 의한 독립성 조장경험( $\beta=-.24, p<.05$ )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6%이었다. 즉,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모에게 과보호되었을수록 내담아동의 부모에게 ‘부정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냉담한’ 역전이 감정은 모에 의한 수용경험( $\beta=-.26, p<.05$ )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이었다. 즉,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모에게 거부되었을수록 내담아동의 부모에게 ‘냉담한’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책적’ 역전이 감정은 모에 의한 수용경험( $\beta=-.27, p<.05$ )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이었다. 이는 아동기에 놀이치료자가 모에게 거부되었을수록 내담아동의 부모에게 ‘자책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중립적’ 역전이 감정은 부에 의한 수용경험( $\beta=.26, p<.01$ )과 모에 의한 독립성 조장경험( $\beta=-.23, p<.01$ )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2%이었다. 즉, 아동기에 놀이치료자가 부에게 수용 받았고 모로부터 과보호되었다면 ‘중립적’ 역전이 감정을 내담아동의 부모에게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놀이치료자의 내담아동에 대한 역전이 감정과 내담아동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과의 관계

내담아동과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간의 관계를 알아 본 상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놀이치료자의 내담아동에 대한 ‘긍정적’ 역전이 감정은 부모에 대한 ‘긍정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53, p<.001$ ), 부모에 대한 ‘따뜻한’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39, p<.001$ ), ‘차분한’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49, p<.001$ )이 있었고, ‘부정적’ 역전이 감정은 부적 상관( $r=-.23, p<.05$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치료자의 내담아동에 대한 ‘따뜻한’ 역전이 감정은 부모에 대해 ‘긍정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42, p<.001$ ), ‘따뜻한’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57, p<.001$ ), ‘차분한’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50, p<.001$ )이 있었고, ‘냉담한’ 역전이 감정은 부적 상관( $r=-.26, p<.05$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치료자의 내담아동에 대한 ‘차분한’ 역전이 감정은 ‘긍정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39, p<.001$ ), ‘따뜻한’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47, p<.001$ ), ‘차분한’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58, p<.001$ )이 있었고, ‘부정적’ 역전이 감정은 부적 상관( $r=-.33, p<.01$ ), ‘냉담한’ 역전이 감정은 부적 상관( $r=-.36, p<.001$ ), ‘자책적’ 역전이는 부적 상관( $r=-.27, p<.05$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놀이치료자의 내담아동에 대한 역전이 감정과 내담아동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과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															
2	.71***	-														
3	.51***	.63***	-													
4	.15	.18	-.03	-												
5	-.31**	-.29*	-.32**	.46***	-											
6	-.31**	-.35**	-.27*	.29**	.66***	-										
7	-.20	-.21	-.23*	.41***	.67***	.77***	-									
8	.00	.11	.37***	.14	.18	.24*	.13	-								
9	.53***	.42***	.39***	-.07	-.20	-.33**	-.20	.07	-							
10	.39***	.57***	.47***	.28	-.09	-.31**	-.13	.20	.77***	-						
11	.49***	.50***	.58***	-.13	-.39***	-.36***	-.24*	.14	.65***	.59***	-					
12	-.08	-.02	-.20	.73***	.63***	.41***	.49***	.14	.03	.19	-.17	-				
13	-.23*	-.19	-.33**	.49***	.86***	.62***	.61**	.17	-.30**	-.16	-.38***	.63***	-			
14	-.22	-.26*	-.36***	.23*	.58***	.68***	.57***	.08	-.44***	-.45***	-.49***	.27*	.65***	-		
15	-.09	-.21	-.27*	.35***	.58***	.77***	.86***	.07	-.18	-.25*	-.16	.46***	.62***	.64***	-	
16	.11	.12	.19	.17	.13	.22	.17	.73***	.14	.16	.33**	.23*	.25*	.16	.29**	-
M	2.80	2.87	2.66	2.13	1.62	1.54	1.42	2.21	2.62	2.60	2.68	1.93	1.62	1.63	1.48	2.31
SD	0.29	0.30	0.40	0.34	0.37	0.36	0.35	0.42	0.29	0.34	0.36	0.35	0.40	0.43	0.40	0.41

주. 내담아동에 대한 역전이 감정

1. 긍정적인 감정
2. 따뜻한 감정
3. 자율적인 감정
4. 가까운 감정
5. 부정적인 감정
6. 냉담한 감정
7. 타율적인 감정
8. 거리를 둔 감정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

9. 긍정적인 감정
10. 따뜻한 감정
11. 자율적인 감정
12. 가까운 감정
13. 부정적인 감정
14. 냉담한 감정
15. 타율적인 감정
16. 거리를 둔 감정

\*  $p < .05$  \*\*  $p < .01$  \*\*\*  $p < .001$

놀이치료자의 내담아동에 대한 ‘동정적’ 역전이 감정은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동정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 = .73, p < .001$ ), ‘부정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 = .49, p < .001$ ), ‘냉담한’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 = .23, p < .05$ ), ‘자책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 = .35, p < .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치료자의 ‘부정적’ 역전이 감정은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차분한’ 역전이 감정과 부적 상관( $r = -.39, p < .001$ )이 있었고, ‘동정적’ 역전이

감정과는 정적 상관( $r = .63, p < .001$ ), ‘부정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 = .86, p < .001$ ), ‘냉담한’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 = .58, p < .001$ ), ‘자책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 = .58, p < .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치료자의 ‘냉담한’ 역전이 감정은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긍정적’ 역전이 감정과 부적 상관( $r = -.33, p < .01$ ), ‘따뜻한’ 역전이 감정과 부적 상관( $r = -.31, p < .01$ ), ‘차분한’ 역전이 감정과 부적 상관( $r = -.36, p < .001$ )이 있었고, ‘동정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41, p<.001$ ), ‘부정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62, p<.001$ ), ‘냉담한’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68, p<.001$ ), ‘자책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77,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치료자의 ‘자책적’ 역전이 감정은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차분한’ 역전이 감정과 부적 상관( $r=-.24, p<.05$ ), ‘동정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49, p<.001$ ), ‘부정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61, p<.001$ ), ‘냉담한’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57, p<.001$ ), ‘자책적’ 역전이 감정과 정적 상관( $r=.86,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치료자의 ‘중립적’ 역전이 감정은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중립적’ 역전이 감정과만 정적 상관( $r=.73,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이 내담아동에 대한 역전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모로부터 과보호되었을수록 내담아동에게 ‘동정적’ 역전이 감정을, 거부 받았을수록 내담아동에게 ‘냉담한’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기에 놀이치료자가 부에게 거부 받았을수록 내담아동에게 ‘자책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결과는 부모에 의한 긍정적인 아동기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 즉 거부와 과잉보호 경험이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역전이 감정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속하는 ‘냉담한’, ‘자책적’ 역전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에게 과보호된 경험에 영향을 받는 ‘동정적’(압도되는, 연민이 드는, 감동한, 놀라운) 역전이 감정의 경우에도, 중립적인 치료적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단어들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치료자가 부모와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을 더 많이 가졌을 경우, 내담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이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모에게 수용받고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격려 받았을수록 놀이치료자의 부모에게 ‘긍정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고 모로부터 과보호되고 부에게 수용 받았을수록, ‘중립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둘째,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모로부터 과보호되었을수록, 내담아동의 부모에게 ‘동정적’, ‘부정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셋째, 놀이치료자가 아동기에 모에게 거부되었을수록, 내담아동의 부모에게 ‘냉담한’, ‘자책적’ 역전이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놀이치료자의 내담아동의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은 내담아동에 대한 역전이 감정에 비해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놀이치료자의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이 부정적인 감정(동정적·부정적·냉담한·자책적·중립적 역전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기 동안 중요한 대인관계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상실을 경험하거나 보호나 지지를 받지 못했

을 때, 정서적으로 취약하게 된다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이장호, 정남은, 조성호, 1999; Brenner, 1987; Dewald, 1987)과 애착이론(Bowlby, 1973)을 지지하는 결과로, 긍정적인 역전이 감정보다 부정적인 역전이 감정이 아동기 경험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 중에서도 모와의 부정적인 경험이 역전이 감정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치료에서 부모상담의 대부분이 모상담이기 때문에, 내담아동의 모와 놀이치료자의 모가 동일시되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내담아동에게 나타나지 않은 ‘긍정적’ 역전이 감정과 ‘중립적’ 역전이 감정이 내담아동의 부모에게 나타나는 것도, 모에 의한 아동기 경험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애착이론이나 Benjamin(1996)의 “copy process”를 지지하는 결과로, 모에게 긍정적으로 동일시된 사람이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모에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머니 상이 아버지 상보다 역전이 감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Holmqvist & Armelius, 2000)와도 일치된다.

반면, 놀이치료자의 ‘중립적’ 역전이 감정의 경우 부에 의한 긍정적인 아동기 경험인 수용경험과 모에 의한 부정적인 경험인 과잉보호 경험이 중복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립적’ 역전이 감정 단어(조용한, 감정을 절제하는, 자제하는, 중립적인)가 치료자의 중립적 반응과 공감하지 못하는 반응,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부에게 수용받은 놀이치료자의 경우 ‘중립적’ 역전이 감정을 중립적인 반응으로, 모에게 과보호된 놀이치료자의 경우 내담자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놀이치료자의 내담아동에 대한 역전이 감정과 내담아동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8개 하부요인 모두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특히, 내담아동에 대한 감정과 부모에 대한 감정을 치료자가 유사하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자의 역전이 감정을 내담아동과 부모 두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놀이치료자가 내담아동에게 ‘차분한’ 역전이 감정과 ‘냉담한’ 역전이 감정을 가지는 경우, 다른 역전이 감정을 느끼는 것과 비교해서 부모에게 다른 양상의 역전이 감정을 나타낸다. 내담아동에게 ‘차분한’ 역전이 감정을 느끼는 치료자의 경우 부모에게 긍정적인 감정은 다른 역전이 감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부정적인 감정(부정적·냉담한·자책적 역전이 감정)과는 더 많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내담아동에게 ‘냉담한’ 역전이 감정을 느끼는 경우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역전이 감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긍정적인 감정(긍정적·따뜻한·차분한 역전이 감정)과는 더 많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서 볼 때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치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역전이 감정의 원인과 유형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역전이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감정의 유발요인에 있어 치료자의 아동기 경험 중 모에 의한 아동기 경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측정함으로써, 모와의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을 치료상황에서도 확인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표집이 어렵고 다양하지 못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중 신교숙(2001)이 가장 큰 표집을(N=134)을 했던 점에 미루었을 때, 본 연구의 표집수가(N=76)가 작은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신교숙(2001)의 표집 중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가 32.8%, 놀이치료 사례수가 1-10명인 경우가 37.3%였던 점에 미루어 봤을 때, 본 연구자의 표집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의 대표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감정을 측정할 시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담아동의 진단범주, 연령, 성별(본 연구의 표집 대상 475명 중 남자는 55%, 여자는 45%), 기질 등 내담아동의 개인적인 성향을 무시하여 역전이 감정을 측정하였으므로, 이를 부가해 연구해야 한다. 특히, 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에서 부모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담자의 성별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데, 내담아동의 부모의 경우 표집 대상 475명 중 모는 408명, 부는 12명, 부모 5명, 기타 50명으로, 내담아동의 부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측정하는데 미비점이 있다.

셋째,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감정을 측정할 시 상담자의 상담경력과 같은 치료자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채 역전이 감정을 측정하였다. 더욱이 표집대상 전체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감정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치료자는 역전이 감정을 느끼는 주체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치료회기에 따라서도 역전이 감정의 정도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그 부분을 간과하여 역전이 감정을 측정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해 치료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놀이치료자의 역전이를 감정적인 측면에만 국한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치료자의 비효과적인 역전이 반응은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행동적 측면은 감정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인 측면만을 측정하였으므로, 역전이 감정이 치료자의 행동적인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의 상관관계에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도상금 (1994). 심리치료 장면에서 치료자의 경험: 역전이 개념과 활용을 중심으로, 서강대 인간이해 15, 5-13.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신교숙 (2001). 놀이치료자의 경력, 훈련 경험 및 자의식과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장호, 정남은, 조성호 (1999).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 학문사.
- 이재광, 기백석, 박두병, 이길홍, 이재우 (1989). 역전이-정의, 분류, 발현양상, 징후 그리고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의과학, 21(2), 129-138.
- 장세미 (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 능력 및 상태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현진 (1996).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윤경 (2001). 국내·외 놀이치료 연구 동향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xline, V. M. (1947). *Play Therapy*. N. Y.: Ballantine Book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227-250.
- Benjamin, L. S. (199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203-1212.
- Bernstein, I., & Glenn, J. (1988). The child and adolescent analyst's emotional reaction to his patients and their parent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o-Analysis*, 15, 225-241.
- Blanck, G., & Blanck, R. (1979). *Ego psychology II: Psychoanalytic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
- Brandell, J. R. (1992). Countertransference phenomena in the psychotherap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J. R. Brandell(Ed.), *Counter-transference in psycho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Jersey: Jason Aronson, Inc.
- Brenner, C. (1987). 정신분석학. (이근후, 박영숙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73년에 출판)
- Brody, E. M., & Farber, B. A. (1996). The effect of therapist experience and patient diagnosis on countertransference. *Psychotherapy*, 33, 372-380.
- Chethik, M. (1989). *Techniques of child therapy: psychodynamic strategie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ronkenberg, S. (1987).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 *Child Development*, 58, 964-975.
- Crowell, J. A., &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8, 976-984.
- Dewald, P. A. (1987). 정신치료의 역동요법. (이근후, 박영숙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69년에 출판).
- Epstein, S. (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 Fiedler, F. E. (1951). A method of objective quantifications of certain countertransference attitud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 101-107.
- Fliess, R. (1953). Countertransference and counteridentification.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 Association*, 1, 268-284.
- Freud, S. (1910). *The future prospect of psycho-analytic Therapy*. *Standard Edition*, 11, 139-151,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 (1959). *The dynamic of transference*. In J. Riviere(ED. and Trans.), Sigmund Freud: Collected Paper 11. New York: Basic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12).
- Friedman, S. M., & Gelso, C. J. (2000).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9), 1221-1235.
- Fromm-Reichmann, F. (1948). Notes on the development of treatment of schizophrenics by

-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Psychiatry*, 11, 263-273.
- Garbel, S., & Bemporad, J. (1994). Variations in countertransference reactions in psychotherapy with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8(1), 111-119
- Gelso, C. J., & Carter, J. (1985). The relationship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 155-244.
- Glover, E. (1955). *The technique of psychoanalysi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ayes, J. A., McCracken, J. E., McClanahan, M. K., & Hill, C. E. (1998). Therapist perspectives on countertransference: qualitative data in search of a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4), 468-482.
- Heimann, P. (1950). On counter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1, 81-84
- Holmqvist, R. (2001). *Self-image and feeling style*. printed material.
- Holmqvist, R., & Armelius, K. (2000).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and the psychiatric staff's self-imag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4), 475-490.
- Landreth, G. L. (1991). *Play Therapy: The art of relationship*. Bristol, PA: Accelerated Development.
- Loewald, H. W. (1986). Transference-countertransference.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34, 275-287.
- McClure, B. A., & Hodge, R. W. (1987). Measuring countertransference and attitude in therapeutic relationships. *Psychotherapy*, 24(3), 325-335.
- Meschiany, A. (1994). Countertransference to parents in child psychotherapy. *Israel Journal of Psychiatry and Related Science*, 31(1), 28-36.
- Michelle, L. B. (1997). *Holding on and letting go: Countertransference in play therapy*, Doctoral dissertation. Windener university.
- Miller, A. (1981). *The drama of the gifted child*. New York: Basic Books.
- Moustakas, C. (1955). Emotional adjustment and the play therapy proces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86, 79-99.
- O'Connor, K. (1991). *The play therapy primer: An Integration of theories and techniques*. John Wiley & Sons, Inc.
- Poal, P., & Weisz, J. (1989). Therapists own childhood problems as predictors of their effectiveness in child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3), 202-205.
- Reich, A. (1951). On counter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2, 25-31.
- Rick, M. H. (1985).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 Attachment across generations, In Bretherton, I & Waters, E(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Robbins, S. B., & Jolkovski, M. P. (1987). Managing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an interactional models using awareness of feeling and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76-282.
- Saul, L. J. (1972). *Attitudes of the Analyst: Psychodynamically Based Psychotherapy*. New York: Science House.
- Scachner, S. E., & Farber, B. A. (1997). Effect of diagnosis on countertransference responses to child psychotherapy pati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4), 377-384.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Synder, W. U., & Synder, B. J. (1961).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New York: Macmillan.
- Van Wagoner, S. L.,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28, 411-421.
- Watkins, C. E. (1985). Countertransference: Its impact on the counseling situ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3, 356-359.
- Winnicott, D. W. (1949). Hate in the counter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0, 69-75.

원 고 접 수 일 : 2002. 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5. 29

게 재 결 정 일 : 2002. 6. 14

K C I

## The Effect of Playtherapist's Experience from Childhood on the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to Their Child Patients and Child Patient's Parents

So-Yean Lee

Kwang-Woong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playtherapist's experience from childhood with their parent affect on the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to child patients and child patient's par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6 playtherapists who had more than 5 playtherapy cases exper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Playtherapists who habitually tended to felt 'Close'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toward their child patients had more over-protected experience from mother and playtherapists who habitually tended to felt 'Cold'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toward their child patients had more being-rejected experience from mother. And playtherapists who habitually tended to felt 'Stuck'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had more being-rejected experience from father. 2) Playtherapists who habitually tended to felt 'Positive'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toward their child patient's parent had more accepted from mother and encouraging-independence experience from father, playtherapists who habitually tended to felt 'Distant'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had more over-protected from mother and accepted experience from father. In addition, playtherapists who habitually tended to felt 'Close' and 'Negative'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toward their child patient's parent had over-protected experience from mother whereas playtherapists who habitually tended to felt 'Cold' and 'Stuck'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had more being-rejected experience from mother. 3)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ub-factors of the playtherapists'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to child patients and sub-factors of the playtherapists'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to child patients' parent.

*Key Words* : *play therapist,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childhood experience*